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조사 참여자 명단 및 약력*

I. 조사 참여자 명단

01. 가야모토 가메지로(樞本龜次郎, 비본구차랑, 1901~1970)
02. 가토 간카쿠(加藤灌覺, 가등관각, 1870~ ?)
03. 간다 소조(神田惣藏, 신전총장, ? ~ ?)
04.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소천현부, 1897~1993)
05.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흑판승미, 1874~1946)
06.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울산준일, 1888~ ?)
07. 나카기리 이사오(中吉功, 중길공, 1908~ ?)
08. 노모리 겐(野守健, 야수건, 1887~1970)
09. 니시다 아케마쓰(西田明松, 서전명송, ? ~ ?)
10. 다나카 쥬조(田中十藏, 전중십장, ? ~ ?)
11.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 입암암, 1894~1982)
12.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조거룡장, 1870~1953)
13.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제록양웅, ? ~1954)
14. 사세 나오에(佐瀬直衛, 좌뢰직위, ? ~ ?)
15. 사와 슌이치(澤俊一, 택준일, 1891~1965)
16. 사이토 다다시(齋藤忠, 재등충, 1908~2013)
17.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관야정, 1868~1935)
18.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삼산신삼, 1906~1997)
19.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유광교일, 1907~2011)
20.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곡정제일, 1880~1959)
21.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소천경길, 1882~1950)
22.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 소전간치랑, 1875~1929)
23. 오다 쇼고(小田省吾, 소전성오, 1871~1953)
24.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소장항길, 1878~1958)
25.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대판금태랑, 1877~ ?)
26. 오와다 모토히코(小和田元彦, 소화전원언, ? ~ ?)
27. 오히라 도시타케(大原利武, 대원리무, ? ~ ?)
28.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 도리문재, ? ~ ?)
29.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미전미대치, 1909?~1942)
30. 요시오카 세이지(吉岡清二, 길강청이, ? ~ ?)
31.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매원말치, 1893~1983)
32.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 1875~1932)
33. 이와이 조자부로(岩井長三郎, 암정장삼랑, 1879~ ?)
34. 이케다 나오쿠마(池田直熊, 지전직웅, ? ~ ?)
35.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지내굉, 1878~1952)
36.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 원전숙인, 1885~1974)
37.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빈전경작, 1881~1938)
38.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전량책, 1892~1960)

* 인명의 표기 방식은 국립국어원 일본어 표기법을 따랐으며, 순서는 한국어 독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다.

II. 조사 참여자 약력

01. 가야모토 가메지로(樞本龜次郎, 비본구차랑, 1901~1970) :

1901년 2월 27일 나라 시(奈良市)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가야모토 가메지로이지만 주로 모리토(杜人)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1919년에는 나라여자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였고 1922년에는 같은 학교의 역사교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1924년에 도쿄 YMCA 영어학교에 입학했고, 그 후 잠시 동안 도쿄제실박물관 역사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1925년에는 도쿄미술학교 문고 담당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927년에 도쿄 YMCA 영어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도요(東洋) 대학의 국어한문과에 입학했다가 1학년 때 중퇴했다.

가야모토는 1930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및 박물관의 촉탁이 되어 고적조사와 박물관 업무에 종사했는데, 당시 조선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구로이타 가쓰미(黒坂勝美)와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의 소개와 추천으로 조선으로 건너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반도의 고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가하여 낙랑 고분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많은 고고유적을 발굴하였다. 그 후 가야모토는 조선고적연구회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으며 1941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에서 자료 정리를 담당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1946년에 나라 현 중요 미술품 조사원이 되었고, 다음 해에 국립박물관 나라분관에 취직하여 1949년에는 문부지관(文部技官), 1951년에는 동관 학예과의 고고실장이 되었다. 1953년에는 도쿄 국립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의 유사실장(有史室長)을 역임하고 1964년에는 헤이조 궁(平城宮) 발굴부의 부장이 되었다가 1966년에 정년 퇴임하여 덴리(天理) 대학 부속 덴리 참고관의 촉탁이 되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때에 호류지 5층탑과 금당 기단 등의 발굴조사에 참가하였으며, 척도를 이용한 청동기 연구와 칠지도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1970년에 타계하였으며, 1980년 간행된 『조선의 고고학(朝鮮의考古學)』은 사후에 그가 쓴 논문과 도면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그의 학문적 성과와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2년에는 그의 생애를 다룬 『고고학자 가야모토 모리토(考古學者 樞本杜人)』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02. 가토 간카쿠(加藤灌覺, 가등관각, 1870~ ?) :

1870년 나고야 시(名古屋市)에서 태어났다. 1894년 쇼조코 사(清淨光寺)의 승려 양성기관인 지쥬(時宗) 서부학림(西部學林) 본과 전문부를 졸업하고,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도쿄 독일협회학교 및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 등에서 독일어와 러시아어 및 인류학을 연구했다. 한국에는 한국어 연구를 목적으로 1910년에 건너왔으며, 1914년 이래 한국 역사지도 편찬과 한국의 관습 및 고도서 조사, 민족자료의 조사 및 수집 사무를 맡았다. 특히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무 촉탁을, 1924년에는 조선의 관습 조사 사무 촉탁을 역임하였다. 독일어와 러시아어·중국어·한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아시아의 풍속 연구를 위해 중국과 한국·인도차이나·만주·몽골 등을 두루 조사하였다.

03. 간다 소조(神田惣藏, 신전총장, ? ~ ?) :

총독부에 소속되기 전의 자세한 약력은 알 수 없다.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1927년 고원(雇員)으로 촉탁된 노모리 겐(野守健)과 함께 공주 무릉리 고분군과 송산리 고분군, 강동의 만달면 승호리 제3호분을 발굴 조사한 것이 확인된다. 그가 노모리 겐과 진행한 공주 지역 고분의 발굴조사 결과는 간략하게 『소화 2년도 고적조사보고(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제2책인 『공주 송산리 고분 조사보고(公州 宋山里古墳調査報告)』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간다는 1932년에 가야모토 가메지로(樞本龜次郎)와 함께 창녕의 신라 진흥왕 척경비, 익산 미륵사지, 공주와 부여에 있는 고분군과 불교 유적의 보존 상황을 조사했으며, 1934년에는 노모리 겐과 함께 여주 신륵사와 고달사지를 조사하였다. 송산리 고분에 관한 것 외에도 간다가 남긴 보고서로는 1929년 노모리 겐과 함께 학봉리 도요지를 조사하고 발간한 『계룡산록 도요지 조사보고(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가 있다. 또한 그는 1935년에 노모리 겐과 가야모토 가메지로와 함께 『평안남도 대동강군 대동강면 오야리 고분 조사보고(平安南道大同江郡大同江面梧野理古墳調査報告)』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04.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소천현부, 1897~1993) :

1897년 나라 현(奈良縣)에서 태어났다. 교토대학 문학부에서 1917년부터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에게 고고

학을 배웠으며, 나라고등사범학교의 조수(助手)가 되었다. 그 후 1921년에 금관총이 발굴되면서 신라 유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총독부 학무국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자, 당시 궁내성의 제능료(諸陵寮)에서 근무하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와 함께 1922년 3월부터 경성으로 건너가 고적조사과의 촉탁이 되어 일하면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도 근무하였다. 고이즈미는 이 시기에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을 정리하였고 1922년에는 『남조선(南朝鮮)의 한대유적(漢代遺蹟)』을 후지타 료사쿠,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와 함께 발간했다. 이후 그는 1924년 실시된 평양에서의 낙랑 고분 조사 작업에 참가하였고, 1925년에 실시된 왕우묘(王吁墓)의 발굴조사에 참가하였으며 1926년에는 서봉총의 발굴을 주도하였다. 1931년에 조선고적연구회가 설립되자 평양연구소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934년에는 새로 창설된 평양박물관의 관장이 되었다. 해방 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와 마찬가지로 1년간 평양에 남아 박물관과 고적조사와 관련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후 1957년에는 나라국립박물관의 학예과장이 되고 1962년에는 덴리(天理) 갤러리의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1993년 타계하였다.

05.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흑판승미, 1874~1946) :

1874년 나가사키 현(長崎縣)에서 태어났다. 1896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1902년 강사, 1905년에는 조교수 겸 사료 편수관이 되었으며 같은 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08년부터 1910년까지는 구미에 출장하였고, 1919년에는 사료편찬관 겸 도쿄제국대학 교수, 1920년에는 도쿄제국대학 전임교수가 되었다.

구로이타의 조선 고적 조사는 1915년으로 소급되는데 그는 1915년 4월부터 8월까지 100여 일에 걸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평양 및 개성 부근을 시찰했다. 이 때 조선총독부는 학무국 편집과에서 온 통역과 사진 기사를 동행시켰고, 6개소의 고적 발굴을 특별히 허가하였다. 이듬해인 1916년 조선총독부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발표하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두었는데, 이때 구로이타는 위원으로 임명되어 조사 계획에 참가하였으며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조사하였다. 그의 보고서는 『대정 5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렸다. 1917년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고적을 조사했으며 1918년 여름에는 고적조사위원으로 평안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친 조사 여행을 하였다. 또한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며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조선사 편찬에 진력하면서 1931년에 발족한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938년에는 도쿄제국대학에서 퇴직하였고, 1946년 73세로 타계하였다.

06.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울산준일, 1888~ ?) :

구리야마는 1909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를 따라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와 함께 1913년까지 한반도에서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16년에 다시 일시적으로 세키노 조사단에 합류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후의 고적조사에서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야쓰이의 기록에서 '나고야 고등공업의 구리야마 학사'라고 쓰인 것을 참고하면 그가 졸업 후 나고야 공업학교에 봉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구리야마는 1930년경에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총독부 영선과(營繕科)의 기사로서 건축설계의 일을 맡아서 했다. 구리야마는 타이베이 우정국, 타이베이 우체국, 타이베이 방송국 등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그는 1928년에 발족한 타이완 건축협회에 소속되어 타이베이 구 총독부 청사의 보존과 네덜란드 통치시대의 요새 유적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07. 나카기리 이사오(中吉功, 중길공, 1908~ ?) :

미술사학자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미술을 주로 연구하였다. 1928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미학미술사연구실에서 17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고유섭(高裕燮, 1905~1944)등 한국인 미술사학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였다. 고적조사에 참여한 것은 1942년의 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촉탁이었던 그가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乾鳳寺), 양양군 낙산사(洛山寺) 및 신흥사(神興寺)의 보물을 조사한 복명서가 남아 있다. 여기서 그가 조사한 것은 건봉사 동제은상감향로(銅製銀象嵌香爐)와 유제향로(鍮製香爐), 마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麻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과 낙산사 칠층석탑, 원통보전 관음보살좌상 등이다. 나카기리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예술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1971년 퇴임하였다. 저서로는 1971년 출판된 『신라·고려의 불상(新羅·高麗の佛像)』과 1973년 출간된 『해동의 불교(海東の佛教)』 등이 있다.

08. 노모리 겐(野守健, 야수건, 1887~1970) :

노모리 겐은 고적조사 사업을 주도했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친동생으로, 노모리 가에 양자로 입양되어 성이 바뀌었다. 원래는 서양화가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형 세키노의 권유로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이 되어 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노모리는 1916년도에 실시한 낙랑 고분의 조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평양지역의 고구려와 낙랑 유적의 조사를 주도한 '세키노 조사단'의 주요 일원이 되었으며 당시에 배운 실측과 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낙랑토성 주변에 산재하는 낙랑 고분의 분포조사를 전담하였다. 경상북도 달성군의 달서 고분군과 공주 송산리의 백제 고분 발굴조사에도 참가하였으며, 1930년도에 실시된 평양 오야리 낙랑 고분의 발굴조사나 1937년에 실시된 강동군 만달산록 고구려 고분의 발굴조사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오바 쓰네키치와 마찬가지로 그림에 조예가 있었던지라 각종 도면의 작성에서 능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노모리는 도자기 연구에도 힘을 쏟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고려·조선시대 자기를 폭넓게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27년도에 실시된 계룡산의 자기 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의 자기를 중심으로 다룬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15권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친형이면서 편집책임자인 세키노 다다시를 도와 사진 자료의 정리와 선별을 도와 준 정황이 확인된다. 이후 노모리는 1944년 『고려도자의 연구(高麗陶磁の研究)』라는 단행본을 간행하였고, 1945년에 총독부를 퇴직하고 중국 동북의 장춘으로 건너가서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어 일시 고립되었으나 1946년 8월에 큐슈의 오이타 현(大分縣)으로 귀국하였다.

09. 니시다 아케마쓰(西田明松, 서전명송, ? ~ ?) :

자세한 경력이나 활동 내용은 불명이다.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따르면 니시다는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참서관실에서 속(屬)으로 근무하였고 1923년부터 1925년까지는 학무국 학무과에서, 1926년부터 1929년까지는 학무국 종교과에서 역시 속으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27년 촉탁 이케다 나오쿠마(池田直熊)와 함께 경상북도 김천군의 감문국(甘文國) 성지를 조사하고 돌아와 복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감문국 성지의 소유자 실태와 발견 유물 등이 기재된 보고서 및 지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10. 다나카 쥬조(田中十藏, 전중십장, ? ~ ?) :

자세한 경력과 활동 내용은 불명이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1910년에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임시토지조사국 대구출장소에 기수(技手)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18년까지 임시토지조사국 근무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2년부터 1924년까지는 학무국 고적조사과에서 기수로서 근무하였으며, 1925년 이후에는 학무국 종교과에서 역시 기수로서 일하였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는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복명서를 통해 다나카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는데, 그는 192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과 함께 평양 지역의 낙랑 유적 및 고구려 고분과 정방산 성불사를 조사하였다. 또한 1927년에는 태천 농오리산성지의 요존림(要存林) 해제 청원과 관련한 조사를 행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경상도의 웅포성지·농암산성지·조령성지, 전라도의 신성리 왜성·봉화산성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1929년에는 단양의 작성산성과 도락산성을, 1930년에는 양주와 연천의 고인돌군과 산성지, 학도사 마애불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 입암암, 1894~1982) :

1894년 후쿠시마 현(福島縣) 고리야마 시(郡山市)에서 태어났다. 후쿠시마 중학교와 제2고등학교를 마치고 1919년 7월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1919년 총독부 기수가 되어 조선으로 건너갔으며, 1920년에는 기사(技師)로 임명받아 총독부 식산국(殖産國)의 지질조사소에서 근무했다. 1931년 지질조사소의 소장이 되었으며, 1927년 5월부터는 총독부 수리과(水利課) 근무도 겸직하였다. 고적조사위원이 된 것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이며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인 보물고적명승천기념물보존회의 위원을 역임한 사실도 확인된다. 일본의 패전 이후에는 귀국하여 규슈대학과 도쿄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고 1982년 타계하였다.

12.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조거룡장, 1870~1953) :

1870년에 도쿠시마 현(德島縣)에서 태어났다.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1893년부터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교실에 고용되어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898년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조수가 되었고, 1905년 강사에 취임했으며 그 사이 랴오둥(遼東) 반도·대만·지시마(千島)·오키나와·만주·몽고의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 그가 조선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1910년 조선총독부로부터 교과서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체질인류학·민속학·고고학 조사를 촉탁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도리이는 1916년까지 매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조선에서 실지조사를 했으며, 1916년 조선총독부가 고적조사위원회에 의한 고적조사를 시작할 때에도 위원으로 선사 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1916년에는 평안남도 와 황해도에 대한 고적조사 결과를 『대정 5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식(漢式) 토기와 무문토기의 분류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19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북만주와 동시베리아를 답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고적조사특별보고(古蹟調査特別報告)』 제2책의 「북만주 및 동부 시베리아 조사보고(北滿及び東部西伯利亞調査報告)」로 간행되었다. 도리이는 1921년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에 제출한 논문 「만몽의 유사 이전(滿蒙の有史以前)」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22년 조교수로 승진하고 이학부 인류학교실 주임이 되었으나 1924년에 사직했다. 만년에는 요대(遼代)의 연구에 주력했고, 1939년 초빙되어 중국에 건너가서 1951년까지 베이징(北京) 연징 대학(燕京大學)의 객원교수로 활약했다.

13.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제록양웅, ? ~1954) :

모로가 히데오는 도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간다(神田)에서 보냈으며, 일제의 이민 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으로 건너왔다. 1908년 한반도로 건너와 인천과 경성, 대구를 거쳐 1910년경 경주에 와서 대서업(代書業)에 종사하였으며, 고적 탐사와 유물 수집에 관심을 가졌다. 1921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계의 경주 주재 촉탁으로 임명되었으며,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이 설립된 1926년 이후에는 초대 관장 역할의 분관 주임을 맡게 되었다. 모로가는 1921년 금관총 발견 당시 유물 수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금령총과 식리총의 발굴 작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는 골동품을 수집하기도 하였는데 이 유물들은 당시 대학이나 개인에게 판매되기도 했으며 그 중 일부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실렸다. 그러나 1933년 모로가는 신라 무덤 도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경주분관장의 보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의 주임은 사이토 다다시(齋藤忠)가 물려받았다.

14. 사세 나오에(佐瀬直衛, 좌뢰직위, ? ~ ?) :

총독부에 소속되기 전의 자세한 약력은 알 수 없다. 1911년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의 속(屬)이 되었고, 이듬해부터 1915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1916년과 1917년에는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인 임시토지조사국 총무과에서 부사무관으로 일하면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간사가 되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함경남도 갑산군의 군수를 지냈으며, 1932년부터 41년까지는 총독부 학무국의 사회과 및 사회교육과의 촉탁이 되었다. 미술과 관련된 그의 논고로는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지에 실린 「조선시대의 화인(李朝時代の畵人)」과 1942년 동 잡지에 실린 「반도 미술계의 회고와 시국(半島美術界の回顧と時局)」이 남아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복명서를 통해 사세가 학무국 촉탁으로서 1932년 대동강 일대 낙랑 고분의 도굴 피해 상황을 조사한 사실과, 1933년에는 황해도 소재 등록 유물의 보존 상황을, 1938년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지정 물건 보존 상황을 조사한 것을 알 수 있다.

15. 사와 슌이치(澤俊一, 택준일, 1891~1965) :

미에 현(三重縣) 쓰 시(津市) 출생이다. 1915년 조선총독부의 임시 고원(雇員)이 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정식 고원이 되어 내무부 겸 총독관방(總督官房)의 총무국에서 근무하였다. 1920년 11월에는 총독부의 임시 교과용 도서 편집 사무의 촉탁을 맡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고적조사과 사무소의 촉탁이 되었다. 사와는 한반도에서 처음 고적조사가 이루어지던 단계부터 촬영을 전담하여,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는 물론 총독부에서 간행한 각종 고적조사 보고서에 게재된 도판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리건판 사진 역시 대부분 사와가 촬영한 것이다. 그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실시한 초기의 고적조사는 물론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와 같은 고적조사 3세대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요한 유적과 유물 사진을 전담해서 촬영하였다. 아리미쓰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현장에서 대형의 조립식 카메라를 사용하였는데, 검은 천을 뒤집어쓰고 자유자재로 노출을 정하며 고구려 벽화 고분 등을 촬영했다고 한다.

16. 사이토 다다시(齋藤忠, 재등층, 1908~2013) :

1908년 미야기 현(宮城縣) 센다이 시(仙台市)에서 태어났다. 1932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1933년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조수를 거쳐 이듬해 조선에 건너와 고고학 발굴을 시작하였다. 1940년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6년간 조선에서 유적 발굴을 하였는데, 주요한 성과로는 1935년과 1936년 충남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보물 제329호인 납석제 불좌상과 보물 제330호인 금동보살입상을 발굴한 것 등이 있다. 이후 도쿄대학에 「신라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문화재보호위원회 주임조사관 등을 거쳐 도쿄대학과 다이쇼(大正)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사이토의 저서로는 1943년 펴낸 『한국 고대문화의 연구(朝鮮古代文化の研究)』, 1947년의 『조선불교미술고(朝鮮佛教美術考)』를 비롯해 『일본고고학사전(日本考古學史辭典)』 등이 있다.

17.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관야정, 1868~1935) :

1868년 니가타 현(新潟縣)에서 태어났다. 1895년 7월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조가학과(造家學科)를 졸업했으며, 1901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902년 건축물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조선에 건너왔고, 경주·대구·개성·서울을 답사하고 190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건축물조사보고(韓國建築調查報告)』를 발간했다. 1909년 통감부 탁지부에서 조사를 의뢰받았으며, 이에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를 보조로 채용하여 1914년까지 매년 가을과 겨울에 고건축 및 일반 유적과 유물의 조사를 계속하였다. 1916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령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고적조사위원으로 촉탁되었으며, 기존 구성원인 야쓰이 세이이치와 구리야마 슌이치 외에도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노모리 겐(野守健)이 더해진 조사단을 이끌고 한사군과 고구려 유적의 발굴 조사를 담당했다. 이 조사 기록은 『대정 5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와 『대정 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에 실렸으며, 이 외에도 1925년과 1927년에는 고적조사 특별보고서에 해당하는 『낙랑군 시대의 유적(樂浪郡時代の遺蹟)』, 1929년과 1930년에는 『고구려 시대의 유적(高句麗時代之遺蹟)』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가 편집을 주도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는 전 15권으로 1915년부터 1935년까지 출간되었으며, 세키노는 『조선고적도보』 제15권이 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35년 7월 타계하였다.

18.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삼산신삼, 1906~1997) :

1906년 교토 시(京都市)에서 태어났다. 교토고등공예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의 고건물 수리 업무에 몸담아 호류지(法隆寺)의 수리 등을 맡았다가, 1935년에 조선총독부 소속이 되어 고건축 수리 기수(技手) 자격으로 한국으로 옮겨왔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국내 주요 건물의 수리공사 감독을 역임하였고, 1945년 귀국하여서는 한 동안 교토대학의 조수직에 있다가 196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1964년에는 나라(奈良)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역사실장을 맡아 헤이조쿄(平城京) 등 건물지의 발굴 조사에 종사하였다. 또한 그 사이에 여말선초의 건축에 대한 문헌과 유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스기야마는 이후 1968년 긴키(近畿)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에 취임하였으며 교토 시의 매장문화재 연구소장직을 맡아 활동을 계속하다 1997년 타계하였다.

19.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유광교일, 1907~2011) :

1907년 야마구치 현(山口縣)에서 태어났다. 1925년에 후쿠오카 고등학교 문과 갑과(甲科)에 입학하여 1928년 3월에 졸업했다. 같은 해 4월에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1931년에 고고학 전공으로 졸업하였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의 지도를 받았다. 아리미쓰가 대학원에 진학한 해

에는 경주에 고적조사연구회(古蹟調査研究會)가 설립되었는데, 그는 하마다의 권유로 8월부터 조수로 경주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부터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사무 촉탁을 겸직하면서 각종 유적조사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기수가 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진파리 고구려 고분의 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듬해인 1941년부터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주임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강사로 촉탁되었으나 해방 후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 주둔군의 문교부 고문이 되어 국립박물관의 개관과 고적조사 사업에 협력하였고, 1946년에는 경주에서 호우총과 은령총의 발굴조사를 지도하였다. 1957년에 교토대학의 교수가 된 뒤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오래 활동하였으며 가시하라(檜原) 고고학 연구소의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고, 1989년부터는 고려미술관의 연구소장직을 맡다가 2011년 타계하였다.

20.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곡정제일, 1880~1959) :

1880년 와카야마 현(和歌山縣)에서 태어났다. 1907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해 9월 교토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일본 고대사를 전공하다가 1908년 도쿄제실박물관이 수장하던 각지 출토품의 조사 연구에 종사했다. 1909년 9월에는 대한제국 탁지부로부터 고건축물의 조사를 촉탁받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수로 활동하며 기초적인 조사 작업을 하였다. 또한 야쓰이는 1909년 탁지부 건축소가 발행한 『한홍엽(韓紅葉)』에 「상고의 한일관계(上世に於ける日韓の關係)」라는 글을 실었으며, 1910년 발행된 『조선 예술의 연구(朝鮮藝術の研究)』에는 「경주의 능묘(慶州の陵墓)」라는 글을 실었다. 더불어 1924년 총독부가 간행한 『고적조사약보고(古蹟調査略報告)』에는 1911년 10월 하순에 실제로 조사했던 대방군의 고분과 토성에 대한 보고서 「황해도 봉산군의 한인 유적(黃海道鳳山郡に於ける漢種族の遺蹟)」을 신기도 했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사무와 관련하여 촉탁되어 거주지를 경성으로 옮기고, 같은 해 평양 부근에서 10기 낙랑고분 발굴의 총감독으로 근무했다. 이때 야쓰이는 발굴현장의 사진 촬영도 담당했으며 다음해인 1917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그는 이를 바탕으로 낙랑군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에 관한 『고적조사특별보고(古蹟調査特別報告)』의 제1책과 제4책, 제5책을 저술하였으며, 전 15책으로 구성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신기도 했다. 야쓰이는 총독부가 실시하는 정식 조사 이외에 울산 등지에 산재한 왜성(倭城)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21년 일본으로 돌아가 와카야마 시(和歌山市)의 문화재 보호 위원 등을 역임하다가 80세인 1959년 타계하였다.

21.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소천경길, 1882~1950) :

1882년 후쿠오카 현(福岡縣)에서 태어났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이 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근무했는데, 당초의 직무는 같은 해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의 발굴조사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이 해에 오가와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조사단 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낙랑군과 고구려 시대 고분군의 발굴 조사에 종사했다. 이후 1917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반에 참가하여 상반기에는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 와 압록강 맞은편의 중국 지안 현(集安縣)을 조사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를 돌며 중요 유적의 발굴 조사를 하였다. 1921년부터 조선총독부 관방토목부 겸 학무국에서 근무하였으며 1923년에는 박물관의 물품 출납 검사관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부터는 세키노 다다시가 주도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8책의 편집을 보조했으며 이후 1934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 제14책까지의 편집 과정에서 게재할 유구와 유물 사진을 선별하고 정리한 정황이 확인된다. 1926년에는 고건축물만을 조사하였고, 1930년 무렵에는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로 배속되었으며 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기념물보존령>이 공포되자 고건축의 개수 및 보존 공사를 기획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36년에 철도국의 공영과로 근무지를 옮겨 이때부터 수덕사 대웅전의 수리, 화엄사 각황전과 장안사 사성전의 수리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실시하다 1944년에 퇴직하였다. 광복 후에 일본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1947년에 규슈 후쿠오카 현의 촌장으로 당선되었다가 1950년에 타계하였다.

22.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 소전간치랑, 1875~1929) :

1875년 효고 현(兵庫縣)에서 태어났다. 이후 와부쓰(和佛) 법률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이 학교를 졸업

하고 난 뒤에는 1901년 사법관 시보, 검사 대리로 임용되면서 사법관료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1903년에는 나가노(長野) 구 재판소의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오다는 사법관으로 재직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1906년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이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침략 정책에 따라 많은 일본인 사법관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다는 1907년 한국 정부의 법무보좌관으로 활동하였고 1908년에는 법전조사국의 전임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관습을 조사하는 실무를 맡았다.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취조국과 참서관실, 중추원에서 근무하면서 관습조사에 계속 종사하였고 1918년에는 중추원 조사과장, 1922년에는 중추원 서기관장을 지내는 등 관습조사의 핵심 직위에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내에서 한국 관습의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았다. 고적조사에 관해서는 그가 발송한 복명서를 통해 1916년 인천 지역의 고탑(古塔)을 조사한 사실과 1922년 수원성 팔달문과 홍화문, 용주사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오다는 1916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하는 『조선어사전』의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1922년 12월 28일부터 1923년 3월 29일까지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다. 1923년에는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1929년 타계하였다.

23. 오다 쇼고(小田省吾, 소전성오, 1871~1953) :

1871년 미에 현(三重縣)에서 태어났다. 1899년 7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02년 도쿠시마(徳島) 현립 사립학교의 교장을 역임했고, 1910년 11월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으로 경성에 부임했다. 이후 그는 1924년 새로 설치된 경성제국대학의 예과부장에 임명되었고 1926년 4월에는 동 대학의 법문학부 교수가 되어 조선사 강좌를 담당하다가 1932년에 퇴직하였다. 이후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위원에 임명되었다. 오다는 1916년 8월 처음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임명되어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에 관여하였는데, 이후 1920년과 1921년에 양산 부부총과 경주 금관총의 발굴 사건으로 학무국에 고적조사과가 설치됨에 따라 편집과장이었던 그가 고적조사과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고적조사과장인 오다의 아래에는 감사관, 속(屬), 기수(技手), 촉탁이 배치되어 고적의 조사와 보존 사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였다. 퇴직 이후 오다는 1939년 숙명여자전문학교의 교장에 취임했다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24.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소장항길, 1878~1958) :

1878년 1월 25일 아키타 현(秋田縣) 아키타 시(秋田市)에서 태어났다. 1903년에 도쿄미술학교 도안학과를 졸업하고, 이바라기 현립 다케가자키 중학교, 아키타 현립 아키타 공업학교에 근무하였다. 1908년에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조수가 되었는데 1912년에 조교수 승진을 전후하여 세키노 다다시의 권유로 한 번씩 평양에 출장하여 고구려 벽화 고분의 실측과 모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해에 오바는 세키노를 보조하여 강서삼묘를 실측하고 벽화를 모사했으며, 1913년에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수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도우면서 벽화를 모사하였다. 쌍영총과 안성리 대총, 화상리 성총과 대연화총의 벽화를 모사한 것도 1912년인데 당시의 모사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쿄예술대학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1916년에는 낙랑 고분의 조사와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와 모사 작업을 위한 현지 출장이 어려워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거주지를 경성으로 옮긴 다음 각종 고적조사 사업에 참가하였다. 이 해에 '고적조사'와 관련된 법령이 지정되면서 그 첫 사업으로 평양에서 낙랑 고분 10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오바 쓰네키치는 현장조사에 참가하며 정백동 1호와 3호를 발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과 칠기의 실측 작업을 전담하며 자신의 특기를 충분히 발휘하였다. 특히 석암동 9호에서 출토된 칠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문칠기를 처음 발견한 것은 이후 낙랑 고분의 발굴에서 기년명 칠기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6년에는 평양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에도 관여하여, 대성산성 일대의 고분군, 순천군의 천왕지신총, 그리고 만달면에 산재하는 고구려 고분의 간이 조사와 석실 실측작업에도 참가하였다. 1917년에는 황해도 봉산군과 순천군을 답사하고 압록강 양안을 오가며 용호동·덕암동·만호동·사장리·신천동·유수림자 등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답사 여행에 참가하여 다수의 실측도를 작성하였고, 능산리 백제 고분의 조사와 고분벽화의 모사를 담당하고 전라남도 나주군 반남면 고분의 발굴조사에도 참가하였다. 1923년에는 경상북도 경주와 영천 금호동, 천군리 동서탑, 불국사 등을 답사하고 경주 남산 불적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낙랑 고분에 대한 조사사업에 참가하여 석암리 200호분의 발굴을 전담하였지만, 이 해에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임되고 말았다. 이

를 기점으로 고적조사사업에서 오바가 차지하는 역할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세키노의 도움으로 도쿄예술대학의 강사로 발령받아 출장 형식을 빌어서 고적조사사업에 계속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1925년에 도쿄대학 문학부의 주최로 실시된 왕우묘(王吁墓)의 발굴조사에서는 매장주체부의 실측과 칠기를 포함한 중요 출토유물의 실측도 작성을 전담하였고 그 후 1928년까지 경주 남산의 불적에 대한 분포도 작성에도 관여하였으며, 1929년에는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칠기의 정리작업과 실측을 위해 출장하기도 했다. 이후 1931년에는 낙랑 채협총 발굴조사에 참가하고, 1932년에는 낙랑 왕광묘의 발굴에 종사하여 많은 수의 칠기를 정리하고 실측도를 작성하였다. 1933년에는 정백리 13·17·59호를 발굴하고, 1934년과 35년에도 낙랑 고분과 지안(集安)의 고구려 유적 조사에서 중심 조사원으로 활약하였다. 1937년에는 경주 남산의 불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보고서에 실린 거의 모든 도면은 오바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양 인근의 임원면 고산리에서 5기의 고구려 고분을 발굴하였고 대보면과 서기리에서도 고구려 고분을 조사하고 도면을 작성하였다. 1941년에 실시된 진파리 고분의 발굴조사에도 참가하여 1호와 4호를 정리하고 벽화를 직접 모사하였다. 이처럼 오바는 경주 남산의 불적조사에도 관여하였지만 주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벽화고분과 낙랑 유적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오바는 광복 후 1946년에 다시 도쿄미술학교의 교수가 되었으며, 퇴임 후에도 닛코(日光) 도소구(東照宮)의 수리에 참가하고 우지(宇治) 보도인(平等院) 호오도(鳳凰堂)의 문양을 모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5.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대판금태랑, 1877~ ?) :

1877년 에도(江戸) 에서 태어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와 역사학을 공부하였으며, 1907년 대한제국의 초빙으로 함경북도의 회령보통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15년 경주공립보통학교로 전근하였다. 오사카는 경주에 온 뒤에 고적보존회 회원의 자격으로 다수의 유적조사에 참여했는데 특히 1921년 금관총 유물 수습 과정에서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그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1931년 『취미의 경주(趣味の慶州)』, 이듬해에는 『경주의 전설(慶州の傳説)』을 집필하여 일제강점기 경주 지역의 문화 유적, 민속, 구전(口傳)등을 정리하였다. 1932년에는 부여고적보존회의 촉탁으로 임명되어 부여 지역의 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로가가 떠난 다음에는 경주고적보존회의 실질적인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활동들로 인하여 1938년 오사카 긴타로는 사이토 다다시(齋藤忠)에 이어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의 3대 주임으로 취임하게 되며, 1945년 광복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26. 오와다 모토히코(小和田元彦, 소화전원언, ? ~ ?) :

자세한 경력이나 활동 내용은 불명이나, 조선총독부의 직원록 자료에 의하면 1938년과 193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속(屬)으로 근무하였고 1939년에는 고적조사위원 서기로, 1940년과 1941년에는 다시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속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1939년도의 복명서에 의하면 그가 속으로서 기수(技手)인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와 함께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의 훼손 상황을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복명서에는 접합한 비의 일부를 누군가가 고의로 굴러 떨어뜨려 놓은 것에 대해 이를 다시 접합한 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쓰여 있다.

27. 오히라 도시타케(大原利武, 대원리무, ? ~ ?) :

역사학자이며 조선 고대사와 만주사를 주로 연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의하면 1922년 처음 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이 되었고 이후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중추원 조사과의 촉탁을 맡아 1933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7년에는 오다 쇼고(小田省吾)등과 함께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를 출간하였으며, 1933년에는 만주사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개설 만주사(概說滿洲史)』를 간행하였다. 또한 오히라는 1930년 1월호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월간지인 『조선(朝鮮)』에 「기준(基準) 및 그 후에인 마한국(馬韓國)」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온조가 백제를 건국한 장소를 현재의 풍납토성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28.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 도리문재, ? ~ ?) :

자세한 경력이나 활동 내용은 불명이다. 경주고적보존회의 촉탁을 역임하였으며 1921년에는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등과 함께 금관총의 발굴과 유물 수습에 참여하였다.

29.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미전미대치, 1909?~1942) :

정확한 생년은 불명이며, 후쿠오카 현(福岡縣)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2년 니혼(日本)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촉탁이 되었다. 이후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비롯한 유적의 고적조사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조선의 고건축이나 고고 유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942년 장티푸스로 젊은 나이에 타계하였으나 그의 연구 성과는 1944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와 무라타 지로(村田治郎)의 편집으로 『조선 고대건축 연구(朝鮮上代建築の研究)』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다.

30. 요시오카 세이지(吉岡清二, 길강청이, ? ~ ?) :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기 전의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요시오카 세이지는 1912년과 1913년에 경기도에서 판임관(判任官) 견습으로 근무하였고, 1914년부터 1922년까지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제1과와 지방과에서 속(屬)으로 근무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1916년 12월 15일자의 고적조사 복명서에서 그가 송광사와 선암사, 대흥사를 조사하고 석비와 석탑 등 19건의 문화재를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1.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매원말치, 1893~1983) :

1893년 오사카 부(大阪府)에서 태어났다. 1914년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의 고원(雇員)에서 출발하여 조수를 맡았으며, 1915년에는 교무 촉탁이 되었다. 1925년 12월에 구미 유학을 떠났으며 1929년 4월 귀국하여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교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중국 청동기를 연구했다. 동시에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강사를 겸했고, 1933년 4월에는 교토제국대학 조교수가 되었다. 우메하라는 조선고적 연구회의 연구원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낙랑 고분군을 발굴 조사했으며, 1936년에는 지안(集安)의 고구려 벽화고분을 조사하여 그 성과를 『통구(通溝)』 하권에 정리했다. 1939년에는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고고학 강좌를 담당한 교수가 되었는데, 조선에서의 고고학 발굴은 그의 고고학자로서의 자리매김에 기여했다. 한편 우메하라는 1918년부터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함께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에 정식으로 관여했는데, 같은 해에 경상북도 성주, 고령과 경상남도 창녕의 고분군을 발굴하고, 1920년에는 김해 패총, 1921년에는 경주 금관총을 발굴했다. 또한 그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와 함께 조선총독부의 1922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경상남북도·충청남도 고적조사보고(慶尙南北道·忠淸南道古蹟調査報告)』 및 제2책 『남조선의 한대 유적(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을 저술하였다. 아울러 우메하라는 『대정 13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의 제1책에 해당하는 『경주 금관총·식리총 발굴조사보고(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32.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 1875~1932) :

1875년 기후 현(岐阜縣)에서 태어났다. 1903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조선사를 전공하고 1906년 가을에는 경주를 답사했다. 계속해서 1907년 여름에 최초로 김해 패총을 발굴했고 1909년에는 한반도 각지를 방문하여 낙랑 고분의 조사를 시도했다. 1913년에는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 강사로 취임하여 조선사 강의를 담당하고 고고학 자료실의 관리를 담당했다. 1916년 조교수로 승진했고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사 편찬을 촉탁받았으며, 계속해서 고적조사 위원에 임명되어 『대정 5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의 상당 부분과 『대정 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의 대부분을 집필하였다. 이후 중국과 영국에 유학하여 1922년에는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 고대사의 연구(朝鮮古代史の研究)』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회원이 되었으며 이듬해 5월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하여 조선사 강좌를 담당하였다. 1932년 교토에 머물렀다가 57세로 병사하였다. 저서로 『신라사 연구(新羅史研究)』, 『백제사 연구(百濟史研究)』, 『고려사 연구(高麗史研究)』, 『조선사고(朝鮮史考)』, 『조선고사연구(朝鮮古史研究)』 등이 있다.

33. 이와이 조자부로(岩井長三郎, 암정장삼랑, 1879~ ?) :

1879년 미야기 현(宮城縣) 센다이 시(仙臺市)에서 태어났다. 1905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1907년에는 대장성(大蔵省)의 건축기사가 되었고 1908년 통감부의 기사가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다.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기사에 임명되어 회계국 영선과(營繕課)에 근무했으며, 1921년 2월에는 토목부의 건축과장으로 발탁되었다. 1922년부터 건축과 근무와 더불어 고적조사위원의 일을 겸하였으며, 1929년 퇴임한 후 귀국하였다. 또한 이와이는 영선과의 기사이던 1912년에 매산리 사신총의 벽화를 조사하기도 하였고, 1916년에는 이지마 모토노스케(飯島源之助)와 함께 개성 만월대·밀양 영남루·안주 백상루와 성천 동명관의 파손 상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1925년 3월에 착공하여 1926년 10월 완공한 경성부 청사의 설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34. 이케다 나오쿠마(池田直熊, 지전직웅, ? ~ ?) :

가고시마 현(鹿兒島縣) 기모쓰키 군(肝屬郡)에서 태어났으며, 총독부에 소속되기 전의 자세한 약력은 알 수 없다. 1910년 경상북도 영덕에서 서기로 근무하였으며, 1911년부터 1916년까지 경기도 고양, 죽산, 교하와 경성부에서 서기로 일하였다. 이어 1917년에는 함경북도의 도서기(道書記)가 되고, 1923년과 1924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의 촉탁이 되었다. 1925년 이후부터 1931년에 이르기까지는 학무국 종교과의 촉탁을 역임하였다. 조선총독부에 올린 복명서를 통해 그가 1927년 니시다 아케마쓰(西田明松)와 함께 김천 감문국(甘文國) 성지의 요존림(要存林) 해제 청원과 관련된 조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케다는 같은 해 부여 가림 성지의 요존림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35.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지내굉, 1878~1952) :

도쿄 부(東京府)에서 태어났다. 도쿄 심상중학교와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04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다. 1913년에는 도쿄제국대학의 강사를 역임했고 1916년에는 조교수가 되었으며, 1922년에는 「조선의 동북 변경과 여진과의 관계(鮮初の東北境と女真との關係)」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25년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1922년 처음으로 조선총독부의 직속기관인 고적조사위원회의 촉탁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교수직에서 퇴임한 1939년까지 매년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이케우치는 1935년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과 함께 광개토대왕릉비·장군총·무용총·삼실총·각저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는 1937년 우메하라와 함께 지안(集安) 지역의 도성과 중요 고분들을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42년과 1943년에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위원을 맡았다. 저서로는 1938년과 1940년 간행된 『통구(通溝)』 상·하권과 1951년부터 그의 사후인 1979년까지 출간된 『만선사연구(滿鮮史研究)』 총 5권 등이 있다.

36.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 원전숙인, 1885~1974) :

1885년 도쿄 간다(神田)에서 태어났다. 1908년 7월 『명대의 몽고(明代の蒙古)』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계속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동양사학을 연구했다. 1914년 같은 대학 문학부 강사가 되었으며 1921년에는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 사이인 1918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에 촉탁되어 같은 해 여름 경상남북도의 고분·사사(寺社)·전탑·석탑·석등·석불 등을 조사하고, 그 성과인 경주 보문리 고분의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을 『대정 7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제1책에 발표했다. 조선 고고학에 대한 하라다의 가장 큰 연구 성과는 1925년 왕우묘(王盱墓)의 발굴조사로, 왕우묘는 평양의 낙랑고분군에 속하는 한대의 목곽분이었다. 하라다는 1930년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에서 다자와 긴고(田澤金吾)와 함께 출판한 『樂浪』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후 그는 1935년부터 1937년에 걸쳐 조선고적연구회의 연구원으로 세 차례 낙랑군 지역의 발굴 조사를 지휘하고, 동 연구회의 1934년, 1935년, 1937년도의 보고서에 그 조사 결과를 남겼다. 일본의 패전 후인 1946년에는 도쿄제국대학에서 퇴임하고 1947년에는 일본고고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 89세로 타계하였다.

37.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빈전경작, 1881~1938) :

1881년 오사카 부(大阪府) 기시와다 시(岸和田市)에서 태어났다. 오사카 시립 기타노(北野)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도쿄의 구 와세다(早稲田) 중학교로 옮겼으며, 제3고등학교를 거쳐 1902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이후 1905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1913년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연구실의 초대 교수로 취임하고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일본 고고학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스에나가 마사오(末永雅雄)·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 등을 후학으로 양성하여 '교토 학파'를 창설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일본 고고학에 유럽의 고고학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하마다는 1920년 우메하라 등과 함께 고적조사위원으로서 김해 패총과 평양의 낙랑 유적, 강서 고구려 벽화고분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박물관 협의원의 일원으로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 해에 교토제국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다음 해에 사직하고 곧 건강이 악화되어 1938년 타계하였다. 하마다의 주요 저서로는 1926년 출간된 『백제관음(百濟觀音)』, 1932년의 『경주의 금관총(慶州の金冠塚)』, 1934년 우메하라 스에지와 공동으로 출간한 『신라 고와의 연구(新羅古瓦の研究)』, 1938년의 『고고학 연구(考古學研究)』 등이 있다.

38.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전량책, 1892~1960) :

1892년 니가타 현(新潟縣)에서 태어났으며 1918년 7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다. 궁내성(宮内省) 제릉료(諸陵寮) 근무를 거쳐 1922년에는 구로이타 가스미(黒板勝美)의 소개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 되어 고고학 전문가로서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근무했다. 이 해에 후지타는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및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와 함께 조선총독부의 1922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경상남북도·충청남도 고적조사보고(慶尙南北道·忠淸南道古蹟調査報告)』와 제2책 『남조선의 한대 유적(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을 저술하였다. 1923년 6월에는 조선총독부 감사관에 임명되었으며 1924년 가을에는 낙랑 고분군의 발굴 조사 중에 행정 정리에 따라 고적조사과가 폐지되어 조선총독부 편수관으로 전직하였는데, 그대로 조선총독부박물관 주임으로 남아 박물관의 운영을 1941년까지 담당했다. 그 사이인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조교수가 되었고 1928년까지 고고학 연구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 유학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함경북도 웅기 송평동 패총의 발굴을 주도했는데 이것은 전쟁 이전 한반도의 석기 시대 유적 발굴 중 최대 규모였다. 이후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진력한 후지타는 간사로서 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연구원을 겸임하였으며, 1933년부터 3년 동안은 제국 학사원 학술연구 장려금으로 조선과 만주의 거석분묘를 연구하였다. 1936년과 1938년에는 대구 대봉정(大鳳町, 현 대봉동)의 지석묘군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1938년부터 1940년에 걸쳐서는 중국 연지 현(延吉縣) 샤오잉쯔(小營子)와 함경북도 회령 부근에서 선사 유적을 조사했다. 후지타는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귀국한 뒤 일본 고고학 협회의 초대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1960년 68세로 타계하였다.